

도시와 농촌지역 초등학교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의 실태 비교 및 개선 방안 연구

이형호* 이재인**

주약초등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요약

본 연구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의 실태를 설문을 통해 실태 비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지역에서 강사수급문제, 교육비 지원문제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강사의 전문성 요구 및 연수 운영, 교육 대상의 제한 등에서는 공통점을 보였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강사의 안정적인 고용 분위기 조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국가적 지원, 연수기회 확대 등을 통해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의 질 향상을 꾀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키워드 : 컴퓨터 특기·적성교육

A study on actual condition and improvement plan of computer specialty and aptitude study in elementary schools of city and farm.

Lee Hyung Ho*, Lee Jae In**

Juyak Elementary School*, J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is study is to make a comparison with actual condition on the computer specialty and aptitude for elementary school of city and farm with questionnairing and to hit with improvement plan. They have several difference from supplying teachers, bankrolling educational expenses but several points of sameness on requiring professional ability, operating study and training, limiting the receiving. Accordingly, if leading the quality improvement of the computer specialty and aptitude by forming stable employing mood, operating various programs, bankrolling educational expenses, extending study and training opportunit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ll get opportunities to develop their ability and aptitude.

Keywords : computer specialty and aptitude

1. 서론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사회를 움직이는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식을 전달하고 주입하는 교육현장에서는 스스로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을 양성하기 힘들다. 따라서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창의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 개혁적 취지로 1996년 방과후 교육활동을 학교 현장에 도입하였고, 1999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특기·적성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소질과 능력 및 특기를 길러 주고, 맞벌이 가정의 방과 후 자녀 관리에 힘이 되어 주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급변하는 세계화를 향한 개방화, 국제화는 우리 교육 현장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과 개인의 특기 및 적성 신장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에서는 현재 특기·적성교육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컴퓨터 특기·적성 교육이다 [2]

현재 실시되고 있는 컴퓨터 특기·적성 교육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학교에서 강사의 모집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이 1년 단위로 변하고 있었다. 강사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사들 중 정보관련 자격증 소지자 혹은 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학생들의 방과후 컴퓨터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농촌지역 학교의 경우 외부의 예산 지원이 있을 경우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 외부 지원없이 학교 예산에서 컴퓨터·특기 적성 교육을 실시할 경

우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컴퓨터 특기·적성 방과후 교육의 시설의 부족, 운영 프로그램의 부적절성, 지도 강사의 자질 부족, 교직원의 업무량의 증가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었다.

반면 도시의 경우 학교와 컴퓨터 특기·적성 관련 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체에서 지원하는 강사에 의해 컴퓨터·특기적성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교육 시설, 운영 프로그램, 강사의 자질 등이 나은 편이었고 교사의 업무도 경감시켜 주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과 농촌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컴퓨터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설문을 통해 도시와 농촌지역 초등학교 컴퓨터 특기·적성 교육의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특기·적성 교육의 개념

‘특기·적성교육활동’이란 기존의 ‘방과후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규교육과정을 다루는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이다.

즉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능력, 요구에 맞는 기능 활동, 학예활동, 체육 및 교과활동, 애향단 활동이나 스카우트 및 아람단 활동 같은 과심과 흥미에 따른 봉사활동, 취미나 오락 활동 등을 전개할 수 있도록 기회와 공간을 제공해 주고 수요자 만족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확보해주는 교육활동이다. 또한 특기·적성교육활동의 조직과 편성을 다양하게 하며 계통적인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가치 있는 활동시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교육적 활동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즉, 특기·적성교육활동의 개념은 아동의 능력과 소질개발 및 개성신장, 건전한 취미와 특기를 길러,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실

시하는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의 유휴시설 및 고급 인력 확대를 극대화하고, 교육적인 병폐로 만연되어 있는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정책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교사나 학생들이 정해진 교과 의 틀에서 벗어나 구속이 없어진 시간이라는 점에서 방과후에는 자율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으로 교과 수업만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전인 교육의 성과를 추구할 수 있다.[3]

2.2 특기·적성 교육의 목적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특기·적성 교육의 목적을 3가지로 제시하였다.[11]

첫째,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 신장 교육의 기회 제공

둘째, 특기·적성교육활동과 연계한 동아리 중심의 학생 문화 장달

셋째,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특기·적성교육활동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발달수준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을 보충하고 다양한 경험을 얻어서 그들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것이 주된 목표이고 특기·적성교육활동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자녀를 포함하여 방과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으로서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만족시키는 활동, 학생지도를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최소한의 비용으로 아동에게 학습의 보충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별활동의 기회제공으로 그들의 미래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전인적 측면의 발달을 제공하는

것이다.[4]

2.3 특기·적성교육으로서의 컴퓨터 교육

초등학교 컴퓨터 관련 내용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제5차 교육과정에서이다. 초등학교 ‘실과’ 과목에 컴퓨터 관련 단원이 포함되었다.

교육내용이 컴퓨터 활용 중심으로 쇠퇴하는 등 컴퓨터 교육 기회가 확대·강화되면서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컴퓨터 교육은 더욱 강화되었다.

2000년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상으로는 6차에 비해 컴퓨터교육이 크게 변화한 것은 없다. 초등학교 ‘실과’에서는 5학년과 6학년에 단원 수준으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따르는 경우 여전히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컴퓨터 교육기회는 학교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며, 이는 결국 정보 소양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 교육과정의 기회 제약 등을 해소하고, 세계적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모든 학생들이 정보 통신 기술에 관한 소양을 함양하며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교과 학습을 위해 정보 통신 기술(ICT)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보통신교육(ICT)의 세부목표로 들어가 보면 다음 내용과 같다.

첫째, 정보와 정보기기, 정보화 사회, 저오윤리와 저작권에 대하여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컴퓨터의 구성과 관리 방법, 운영 체제를 이해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초 지식을 길러 각각 교과별 교수·학습에 최대한 활용한다.

셋째, 교육용 소프트웨어, 워드프로세서, 멀티미디어, 스트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익혀 학습 활동과 일상 생활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인터넷에 관한 사용법을 익히고, 이를 사용하여 학습과 자시의 문제 해결에 필

요한 정보를 만들고 적극 활용한다.

다섯째, 컴퓨터의 기초 기능과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통신 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3]

3. 선행연구

3.1 국내

유민정은 특기·적성교육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도 강사에 대한 지원활동과 특기·적성교육에 적합한 교사의 확보, 학부모의 협조, 운영위원회의 인식전환 등이 필요하고 적합한 시설 확충과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사의 과다한 업무의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하였다.[6]

정경진은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에 있어서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하고 각 학교에 배포하여 민간참여 업체 및 외부 강사가 교육을 지도할 경우 지침서를 기준으로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도 강사에 대한 컴퓨터의 지식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7]

박현수는 특기·적성 교육을 민간 참여로 하는 것보다는 일선 교육 선상의 학교 교육으로 행해져야 사교육비 문제, 질적인 교육내용 및 과정 문제, 지도교사의 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8]

3.2 해외

3.2.1 미국

미국의 학교에서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문 지도자들이 학생들의 특별활동을 지도하고 있다.[5]

한국교육신문(2000)에 의하면 미국의 신문에 의하면 미 전역에 있는 수천 개의 초등학교에서 매일 벌어지는 방과후 학습(after school)실태에 관한 특집기사에서 “혁명은 오후 3시에 시작된다”는 표현으로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교생활에 대한 이미지가 수 세대에 걸쳐 처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과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97년 100달러에서 2000년 4억 5,400달러로 454배가 늘었다고 한다.

한 예로 밀워키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밀워키 공립학교 시스템은 젊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Safe-Haven이라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역조직 및 주민들과 공동으로 진행중에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총 8,3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과제를 돕고 개인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게임 활동, 여가활동, 예술, 기타 컴퓨터 기술 습득 등이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경찰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시키는 한편, 학생들로 하여금 경찰체육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장 청소년 범죄율이 높은 시기의 학생들이 범죄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며, 실제 이 프로그램 실시 후 청소년 범죄율이 20%이상 하락했다.

3.2.2 일본

일본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활동은 주로 독서활동, 문화활동, 전통풍습활동, 예·체능활동이 주로 이루고 있다. 방과 후에 특기 신정을 위해 자유로이 참가하며 학원 등에서 받는 보충학습은 방학기간에 대한입학을 앞둔 학생들이 주로 수강한다.[5]

3.2.3 프랑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프랑스에서는 대학입시를 위한 방과 후 학원과외나 개인과외가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일부 중등학교에서는 청소년 체육인(꿈나무) 육성을 위한 체육 특기교육을 실시하는데 수업시간을 조정하여 일반적으로 하루에 4~5시간의 정규수업과 방과후 6시간의 훈련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5]

4. 특기·적성에서 컴퓨터 교육 실태 조사

4.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 남해군에 소재한 초등학교 13개 학교(분교포함) 교사들과 진주시 동지역에 소재한 2개 학교 교사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4.2 연구내용

도시와 농촌에 소재한 초등학교 컴퓨터·특기·적성교육의 실태를 설문지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4.3 설문내용

도시와 농촌에 소재한 초등학교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의 실태에 관한 설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료가 수집되었다.

특기·적성교육을 담당자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표 1>과 같다.

<표 1> 특기·적성교육 담당

문항	담 임	외부 강사	정보 자격증 소지 교사	기타
도시 응답수	0	2	0	0
농촌 응답수	3	8	1	1

<표 1>에서 외부강사를 선택한 학교를 대상으로 외부 강사의 컴퓨터 관련 자격증 유무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표2와 같다.

<표 2> 외부강사의 컴퓨터 관련 자격증 유무

문항	자격증 소지	자격증 미 소지
도시 응답수	2	0
농촌 응답수	8	0

<표 1>에서 외부강사의 소속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3>과 같다.

<표 3> 외부강사의 소속

문항	외부 용역	학교 자체 모집 공고에 의한 계약직
도시 응답수	2	0
농촌 응답수	2	8

<표 1>에서 특기·적성교육 담당자가 정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인 학교를 대상으로 소지 자격증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4>와 같다.

<표 4> 자격증 종류

문항	워드 프로세 서	컴퓨터 활용능 력	컴퓨터 그래픽 관련	컴퓨터 관련 기사	기 타
도시 응답수	0	0	0	0	0
농촌 응답수	1	0	0	0	0

<표 1>에서 외부강사를 선택한 학교를 대상으로 특기·적성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수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5>와 같다.

<표 5> 외부강사의 수

문항	1명	2명	3명	4명	5명
도시 응답수	2	0	0	0	0
농촌 응답수	8	0	0	0	0

학교의 학생 수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6>과 같다.

<표 6> 학교 학생 수

문항	100명 미만	100~ 200명	200~ 300명	300명 이상
도시 응답수	0	0	0	2
농촌 응답수	9	2	1	1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하는 학년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7>과 같다.

<표 7> 참여 학생 수(중복 선택 가능)

문항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도시 응답수		2	2	2	2	2
농촌 응답수	8	9	11	11	11	11

교육 참여 학생의 컴퓨터 관련 지식 및 컴퓨터 활용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8>과 같다.

<표 8> 참여 학생의 컴퓨터 활용 수준

문항	자기 주도적 학습 가능	배운 내용 이해	개별 지도 필요
도시 응답수	1	1	0
농촌 응답수	1	10	2

학교 예산에 소프트웨어 구입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매년 구입 물음에 대한 응답은 <표 9>와 같다.

<표 7> 참여 학생 수(중복 선택 가능)

문항	그렇 다	잘 수행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도시 응답수	2	0	0
농촌 응답수	11	2	0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 물음에 대한 응답은 <표8>과 같다.

<표 8> 참여 학생 수(중복 선택 가능)

문항	컴퓨터	주변 장치	소프트 웨어	대형 모니터	기 타
도시 응답수	2	0	0	0	0
농촌 응답수	1	3	5	3	1

현재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업방식 물음에 대한 응답은 <표 9>와 같다.

<표 7> 참여 학생 수(중복 선택 가능)

문항	강의식	과제 중심	시험	자기주도 적 학습	기 타
도시 응답수	2				
농촌 응답수	8	3	2		

현재 학교에서는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에서 학생들을 수준별 지도하는 프로그램의 유무에 대한 물음에 대한 응답은 <표 10>과 같다.

<표 10> 수준별 지도 프로그램 유무

문항	있다	없다
도시 응답수	0	2
농촌 응답수	1	12

컴퓨터 특기·적성교육 내용 선정 주체 물음에 대한 응답은 <표 11>과 같다.

<표 11> 내용 선정 방법

문항	강사	의견 수렴	의견 조율	기타
도시 응답수	2	0	0	0
농촌 응답수	7	5	1	0

현재 교육 내용 물음에 대한 응답은 <표 12>와 같다.

<표 12> 교육 내용(중복 선택 가능)

문항	운영 체제	위 드	인 터 넷	파워포 인트, 엑셀	동 영 상	자격증 대비
도시 응답수	0	2	0	2	0	2
농촌 응답수	2	10	3	5	2	5

효율적인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을 위한 지도강사 연수 필요성 물음에 대한 응답은 <표13>과 같다.

<표 13> 지도강사 연수 필요성

문항	필요	불필요	기타
도시 응답수	1	1	0
농촌 응답수	12	1	0

컴퓨터 특기·적성교육 대상의 제한 여부 물음에 대한 응답은 <표 14>와 같다.

<표 14> 교육 대상 제한 여부

문항	학생 제한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기타
도시 응답수	2	0	0
농촌 응답수	10	3	0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의 운영비 충당 방법 물음에 대한 응답은 <표 15>와 같다.

<표 15> 운영비 충당 방법

문항	지자체 지원	자비 부담	학교 예산	지원+자비 부담	기타
도시 응답수	0	2	0	0	0
농촌 응답수	7	1	2	1	2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물음에 대한 응답은 <표 16>과 같다.

<표 16> 특기·적성 교육의 문제점

문항	도시 응답수	농촌 응답수
지도교사·강사의 전문성 부족	2	5
자료·프로그램·시설 부족	0	2
수강료 과다	0	0
학생수 과다	0	2
관리자 관심 부족	0	0
학부모 관심 부족	0	1
학생의 수업 이해력 부족	0	2
기타	0	1

5. 결과 비교 및 분석

앞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첫째, 교육 담당자에서 도시 지역은 학교와 계약된 외부 용역을 통해 업체에서 파견된 강사가 학교에 상주하며 교육을 담당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대부분 공고를 통한 모집의 방법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강사와 학교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럴 경우 강사 신변의 변화가 있으면 학교에서 다시 공고와 모집의 절차를 밟으며 만약 강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컴퓨터 자격증 소지 교사가 대신 교육을 담당하게 되어

교사의 업무과중 및 교육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컴퓨터 특기·적성교육 담당 강사들은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는 있었으나 대부분이 워드 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 능력 관련 자격증이였다. 따라서 해당 시간의 수업 내용은 대부분이 워드에 워드나 컴퓨터 활용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몇몇 학교는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의 실적을 쌓기 위해 교육 내용 자체가 자격증 대비 이론 및 실기교육에 시간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의방법 역시 강의식 및 과제 중심이 대부분이고 교육 내용 선정도 강사가 대부분 결정하고 있었다.

셋째, 컴퓨터 특기·적성 교육의 운영비 충당은 도시와 농촌간 다소 많은 차이를 보였다. 도시는 전적인 교육생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에서는 지자체, 학교 예산을 통해 상당부분 방과후 교육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원의 대부분이 강사료로 책정되어 있어 학생들의 교육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에서 공통적인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강사 혹은 담당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교육 담당자의 경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의 수요자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수업내용에 흥미를 잃고 있었다.

둘째, 지도강사의 연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식 전달을 위한 교수방법 뿐만 아니라 성장 시기에 따른 학생 이해도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셋째, 교육 대상이 대부분 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도시의 경우 학부모 중 맞벌이 부부가 많고 대부분 컴퓨터 사용에 익숙한 편이라 처음 수요조사에서부터

학부모들은 대부분 제외된다. 그리고 농촌의 경우 컴퓨터 사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부족한 편이나 외부 강사의 경우 강사료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시간을 늘리기가 어렵고 외부 강사 및 교사들이 장거리 통근자가 많기 때문에 교육 대상의 범위 확대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힌다.

6. 결론 및 제언

특기·적성 교육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 수요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이다. 특기·적성 교육의 한 영역인 컴퓨터 특기·적성교육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 내용 및 방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 교육 시스템을 고수한다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 및 신장하기 보다는 정체 혹은 퇴보시키는 길로 안내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드러나는 현재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의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으로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강사를 지정하여 미래를 바라보고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도시보다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의 강사 수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컴퓨터 특기·적성 교육 강사 채용 시의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다양하게 소지한 사람을 우선시하여 교육 대상인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학교에서도 근시안적인 결과물 위주의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능력 계발을 도모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학생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 및 지역 교육청에서 지도 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및 보급해야 한다. 이러한 연수를 통해 우리는 교육의 질 향상 및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여섯째, 컴퓨터 특기·적성의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우고 알아가는 즐거움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이 대부분인 교육대상을 학부모, 노인,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으로 범위를 넓혀서 여러 계층에게 혜택을 주어 컴퓨터 사용에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참고문헌

- [1] 유민정, 초등학교 컴퓨터 특기적성·교육 실태조사 및 분서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2] 이인순, 이수정, “특기·적성교육활동 중 컴퓨터교육에 대한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학구정보교육학회 99하계 학술 발표 논문집, 1999.
- [3] 교육부, “초·중등학교 정보 통신 기술 교육 운영 지침 해설서”, 2000.
- [4] 한국여성개발원,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총론, 교육 과학사, 1997.
- [5] 구연희, 세계 주요 국가들의 특기·적성 교육, 교육연구, 2002.
- [6] 유민정,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7] 정경진, 컴퓨터 특기·적성 교육현황과 효율화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8] 박현수, 컴퓨터 특기·적성 교육의 실태에 관한 연구 및 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9] 박미영,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 [10] 이지은,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11] 교육부 초등학교 방과후 특별활동 활성화

화 방안, 서울, 교육부

[12] 한국교육신문, 2000. 3. 6.